

임실N치즈축제 성공 개최 총력 민선8기 공약이행 평가 '최우수'

임실 방문의 해 맞아 기존 4→5일로 확대·콘텐츠 대폭 강화... 10월 8~12일 개최

올해 임실 방문의 해를 맞아 2025 임실N치즈축제가 기존 4일이 아닌 5일간으로 확대 개최되며, 한층 새롭고, 더 풍성하며, 차별화된 콘텐츠로 관광객들을 맞이할 전망이다.

군은 오는 10월 8일부터 12일까지 임실치즈테마파크와 치즈마을, 임실을 일원에서 열리는 임실N치즈축제의 성공 개최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에 따르면, 지난 15일 심 민 군수 주재로 축제 제전위, 대행사, 관계부서가 참석한 가운데 임실N치즈축제 기본계획 보고회를 열고, 축제 추진 방향과 세부 실행계획을 점검하며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축제 추진 일정과 프로그램 구성, 관광객 안전 대책, 축제장 구성 등 축제 전반에 대해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논의가 이뤄졌다. 임실군의 대표 축제인 임실N치즈축제는 '임실N치즈'와 '임실N치즈피자'를 테마로 대한민국 최초의 치즈 역사를 기념하면서, 지난 1967년 故 지정 환 신부가 산양 2마리로 시작한 임실 치즈 산업의 역사를 계승 발전시켜 왔다.

지난 2015년 1회 축제 당시에는 10만여명이 방문했으나, 이후 해마다 축제장을 찾는 관광객이 30만명을 넘어선 데다 50만명 이상이 찾는 등 꾸준히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열 번째를 맞이한 임실



임실군은 오는 10월 8일부터 12일까지 임실치즈테마파크와 치즈마을, 임실을 일원에서 열리는 임실N치즈축제의 성공 개최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진은 향토음식관.

N치즈축제 기간에는 58만여명의 관광객이 대거 몰려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명불허전, 역시 임실N치즈축제'라는 찬사를 이끌어냈다.

군은 그간 쌓아온 경험과 열정을 바탕으로 더욱 차별화되고 매력적인 콘텐츠를 구성해 색다른 볼거리와 체험거리 제공은 물론, 내방객들이 쾌적하고 편안한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각종 편의 제공에도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올해 임실N치즈축제는 △임실N 글로벌치즈 푸드페어 △수성치즈를 활용한 맛있는 디지털푸드체험 △국가 대표 임실N치즈 대형 피자 △볼기에 부스 운영 등 프로그램을 더욱 새롭게 완성도 높게 준비하고, 특히 저지속 수성치즈와 무가당 요거트 활용 프로그램을 한층 확장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천만송이 국화꽃 경관이

올해도 어김없이 축제장 일대를 가득 수놓아, 유령형 잠미원과 함께 어우러져 관광객들에게 향기로운 감동의 향연을 선사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차별화된 체험 콘텐츠 등 다채로운 즐길거리와 볼거리, 청정 임실에서 지난 50개월 미만의 압소 한우와 읍면 생활개선회에서 정성껏 만든 엄마포 향토 먹거리 등 전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로 준비된다.

심 민 군수는 "2025 임실 방문의 해를 맞아, 그간 10년을 쌓아온 경험과 열정을 바탕으로 새로운 10년을 알리는 성공적인 2025 임실N치즈축제 개최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예년보다 더 성장하고, 더 새로운 축제를 선보일 예정이다. 많이들 오셔서 치즈축제 색다른 매력에 빠져보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시, 3년 연속 SA등급 획득

남원시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발표한 '2025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결과 최우수 등급인 SA등급을 받았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남원시는 지난 2023년부터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3년 연속 SA등급을 받으며 시민과의 약속을 가장 잘 이행하고 있는 최우수 자치단체로 인정받았다.

이번 평가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90여 일간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공약이행완료 △2024년 공약목표 달성도 △주민소통 △웹소통 △선거공약 일치도 등 5개 분야를 평가하였으며, 남원시는 종합 평점이 87점을 넘어 최우수 등급인 SA를 받았다.

시는 민선 8기 문화와 미래산업으로 도약하는 남원 실현을 위해 6대

분야 41개 공약사업 중 23건을 완료하고 18건을 정상 추진 중이다.

공약이행 완료율은 전국 평균 53.05%보다 높은 78.05%이고, 2024년 목표달성율은 전국 평균 92.55%보다 높은 100%이며, 공약이행을 위한 필요 재정 확보율은 전국 평균 43.11%보다 크게 상회한 51.72%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시는 남원시 공약관리 운영 규정에 공약 이행평가 과정의 민주성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 공약 이행평가단 운영과 남원시 누리집에 공약 이행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등 소통행정 구현에 집중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있었기에 3년 연속 민선 8기 공약이행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게 됐다"며 "시민과의 소중한 약속인 공약 이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 2년 연속 SA등급 획득

순창군이 (사)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관한 '2025년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2년 연속 최고 등급인 SA등급을 획득했다.

평가 결과에 따르면 전국 평균 공약이행률은 53.05%에 머물렀으나, 순창군은 이보다 30% 이상 높은 83.54%를 기록하며 전국 최상위권 성적을 거뒀다.

이번 평가는 전국 227개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공약이행 완료 △2024년 목표 달성도 △주민 소통 노력 △웹소통 △공약 일치도 등 5개 항목을 기준으로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를 분석해 이뤄졌다. 순창군은 민선 8기 출범 이후 군민

모두가 행복한 순창을 균형 비전으로 내세우고 5개 분야 79개 공약사업을 추진해왔다.

이 중 53건을 완료했고, 26건은 정상 추진 중이다. 군은 연말까지 7개 사업 추가 완료를 목표로 전 부서가 협력해 속도를 낼 방침이다.

최영일 군수는 "군민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 덕분에 2년 연속 SA등급이라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군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공약 실천력 강화를 위해 매년 '매니페스토 실천교육'을 전 직원 대상으로 실시하고, 분기별 공약 이행 점검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올바른 한 표,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최영일 순창군수, 대통령선거 앞두고 투표 독려 캠페인 전개

최영일 순창군수가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군민들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최 군수는 지난 16일 순창 전통시장을 찾아 상인들과 주민들에게 선거일정과 투표 절차를 안내하며 현장 소통에 나섰다. 신규 공무원들도 피켓을 들고 캠페인에 동참했다.

군은 '올바른 한 표,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를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현수막·전광판·전화 콜러링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선거 참여를 알리고 있다.

특히 청년층 유권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포토샵 캠페인도 병행해 눈길을 끌고 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지난 16일 순창 전통시장을 찾아 상인들과 주민들에게 제21대 대통령선거 일정과 투표 절차를 안내하며 현장 소통에 나섰다.

최영일 군수는 "한 표는 나라의 미래를 바꾸는 힘"이라며 "모든 군민이 책임 있는 주권자로서 반드시 투표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사업 사업설명회 개최

남원시 스마트농생명과는 대신면 행정복지센터실에서 사업예정지 토지소유자 및 면민을 대상으로 지난 15일과 16일,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사업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사업설명회는 남원시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사업 내용과 2026년 사업 공모계획, 사업예정지 매입 절차 설명하였으며, 2025년 상반기 내 사업예정지 매입을 위한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하반기부터 사업예정지 토지소유자와 협의를 통해 매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남원시는 2024년부터 60.1ha 규모의 '예코 에너지 스마트팜 복합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농산물 생산, 유통, 연구개발(R&D)을 집중



육성하고, 첨단기술과 청년농 유입, 바이오 작물 재배를 결합한 농업 복합단지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이 중 '남원시 스마트원예단지 기반 조성사업'은 대신면 운교리, 수덕리 일원에서 추진 중인 '예코 에너지 스마트팜 복합단지 조성사업'에 속한 사업으로, 스마트팜 단지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지역 소식통

임실군,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알림·지도·점검

임실군이 공중위생 향상과 육정호 녹조 예방 등 관내 수질환경을 보전하고자 2025년도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계획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 사용자에게 야영장, 목적호 인근지역 등을 5월부터 11월까지 청소 알림 및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안정적인 유지관리와 정기적인 청소 이행을 통해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운영상의 취약점을 사전에 개선함으로써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추진된다.

군은 관리계획에 따라 육정호 인근지역과 2024년도 지도·점검 방문수 수집감사 부적합 대상지, 시설용량 등을 고려해서 50개소를 선정하여 현장 점검한다.

정화조 등 청소 의무를 현수막(5월~6월), 우편발송(5월), 이장회보(5월~11월) 등을 통해 개인하수처리시설 사용자에게 알릴 계획이다.

점검 결과 운영이 부적절한 시설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조치 및 재점검을 통해 철저히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임실=진홍영 기자

임실군, 정신건강 응급 대응협의체 간담회 개최

임실군정신건강복지센터가 정신건강 위기 상황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신건강 응급대응협의체' 간담회를 지난 14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지역 내 정신응급상황 발생 시 유관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점검하고, 실질적인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실경찰서, 임실119안전센터, 임실군정신건강복지센터로 구성됐으며, 정신건강 위기 대응과 관련된 주요 기관들이 참석하여 실무 중심의 논의를 이어갔다.

주요 논의 내용으로는 △정신응급대응 사례 공유 △기관 간 역할 및 대응체계 재정비 △정신응급 대응 매뉴얼 개선 등이 포함됐으며, 특히 최근 증가하는 자·타해 위험군에 대한 공동 대응 전략과 신속 개입 체계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N치즈

별기에 출신 지정학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달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